

날짜 2022-05-22(D1) 본문 창3:9-10, AC.226-228
번호 2308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네가 어디 있느냐’

⁹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¹⁰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3:9-10)

시작 주기도
찬송 찬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창3:9-10, AC.226-228
찬송 찬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헌당예배**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박희준, 김미경 선교사님 만 3년 걸려 세우신 'Aoloco Team Church' 교회 헌당예배가 지난 19일 (목)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있었습니다.
- ② **장례** 지난 20일(금), 평책사 신대균 목사님(하인교회 담임) 모친상(고 김정희 권사, 향102세) 입관예배 있어 사모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서농협장례문화원에 조문 다녀왔습니다.

헌금기도, 축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피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선악과 본문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의 질서, 순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출발, 천국을 적시고 사람 안 속 사람으로, 그리고 걸 사람을 통해 자아와 오감으로 흐른다는 것, 그 역순은 안 된다는 것, 이 순서 가운데 아담은 속 사람과 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 곧 주님의 것을 걸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는 합리와 이성의 역할임에도, 오늘 본문의 아담은 거꾸로 자아가 원하는 것을 덜컥 동의하는 바람에 주님 주신 모든 지혜, 지성 다 잃고 빈 껍데기만, 자연적 선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며 자칫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오늘 본문 아담 처럼 깊은 잠에 빠져 그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다 망각하고 오히려 정반대 역기능의 삶을 살며, 참 후회되는 인생 살게 된다는 점 깊이 명심했습니다.

늘 시선을 주님께, 천국에 고정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은 퍼셉션을 공급 받으며, 천사들처럼 어느 한순간도 주님 뜻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별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 없는 일상 살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 아멘!